

제40이통 출현 눈앞… 승인시 내년 4월부터 서비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 통과… 다음달 본심사

가입비 폐지에 월 3만원이면 데이터 무제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음달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KMI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달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

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과 제휴 협약을 맺어 LTE-TDD 시스템 구성 및 전국망 구축 능력을 갖췄으며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적 자원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LTE-TDD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에릭슨LG,

KMI의 공종렬 대표는 “사업 허가를 받으면 내년 4월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85개시 지역에서 LTE-TDD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7월까지는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내외 주요 기업과 제휴 협약을 맺어 LTE-TDD 시스템 구성 및 전국망 구축 능력을 갖췄으며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적 자원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LTE-TDD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에릭슨LG,

노키아솔루션앤파트워크(NSN) 등 대형 장비업체와 50여개 중소기술기업과 기업과 시스템과 망 구성을 위한 제휴 협약도 체결했다.

KMI는 LTE TDD 시스템 구성요소를 차질없이 조달하도록 협력업체와 중소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MI는 또 가입비를 폐지하고 월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이용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서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30% 절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기존 통신사의 결합상품과 비교하면 기준요금 대비 1인당

평균 30% 이상 절약되며 1인 세대나 1인 사업자는 6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제조자설계발생산(ODM) 방식으로 제조해 2년 약정 40만원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 대월평균 2만1000원의 통신비 절감이 이뤄진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가입자 확보 역시 전국 판매점과 인터넷 유통점을 통한 기존 방식에 더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인적 유통망, 금융사, 대형 유통점, 대형서점 등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복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나

포털 검색 1위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통합검색 서비스는 전문검색, 주소창, 북마크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부기통신서비스인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

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포털 업계 1위인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할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포털 검색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기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획정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쟁상황 평가 대상은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등이다.

KISDI는 통신사업자들의 2012년도 영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시내전화 1위 사업자인 KT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SK텔레콤은 2012년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52.8%, 가입자의 49.5%(알뜰폰 제외)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고수했다. 이는 2011년 매출액의 54.5%, 가입자의 50.5%를 점했던 것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KT는 2012년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69.6%, 가입자의 61.6%로 2011년 매출액의 72.5%, 가입자의 64.4%보다 소폭 줄었다.

KISDI는 “이동통신 시장은 통합 애설루션(LTE) 도입 이후로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복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과학기술 장교·부사관 뽑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국형 탈피오토(Talpiot)인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기존사 이버 전문 장교 외에 부사관·사병도 모집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국방부와 ‘과학기술 및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국방부는 업무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올해부터 매년 20명 모집한다.

탈피오토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엘리트 장교 육성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선발해 군 복무기간 다양한 기술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대

상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항공대(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과기특성화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생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3~4학년 동안 국방과학 관련 분야 교육을 포함한 학사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전기·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물리·화학 분야 연구개발 전문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한다.

오는 10월 선발되는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2017년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사이버 전문 부사관·사병을 선발한다.

/복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는 5일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온라인 캠페인인 ‘갤럭시 노트3 올림픽을 노트하다’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쇼트트랙 대표팀의 경기 기록을 예상해 응모하면 갤럭시 노트3 로즈골드 등 다양한 경품을 준다.

〈삼성전자 제공〉

2014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경매”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주) 대신경매 김 봉수 드림
(주) 우리옵션 이 재우 드림

돌아온 빌게이츠

5년 만에 현업 복귀… MS 기술 고문 맡아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립자 빌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공식 직함을 가지고 현업에 복귀했다.



MS는 4일(현지시간) 사티아 나델라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취임을 발표하면서 게이츠가 33년간 재직해 오던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창립자 겸 기술 고문’이라는 새 직책을 이사회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다.

게이츠의 직책은 나델라 CEO를 보좌해 기술과 제품 개발 분야의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언뜻 보면 게이츠가 회사 경영에서 더 후퇴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형식상 회사의 최고위 직책인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평이사가 됐다는 점에서 직급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공식 직함을 갖고 나델라 CEO를 비롯한 회사 집행부와 상시 접촉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복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우세하다. MS도 게이츠의 역할 변화를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 것’(a step up)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게이츠는 나델라의 요청에 따라 MS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하고 여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MS에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기술적 방향을 정리하면서 나델라 CEO에게 기술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ktcs “스팸전화, 불법게임·도박 최다”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불법게임과 도박’을 향하는 스팸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012년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69.6%, 가입자의 61.6%로 2011년 매출액의 72.5%, 가입자의 64.4%보다 소폭 줄었다.

KISDI는 “이동통신 시장은 통합 애설루션(LTE) 도입 이후로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출권유가 51만8891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텔레마케팅이 21만 58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4위는 성인·유형업소(20만501건), 5위는 휴대전화 판매(17만4726건), 6위는 보험가입(9만9321건)이었다. 7~10위는 광고전화(8만8804건), 대리운전(7만9624건), 보이스피싱(5만 8223건), 전화유동(4만2098건)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다음 국내 첫 모바일 음성인식 API 공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최초로 모바일 음성 인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음성 인식 API는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어 음성을 인식한 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이다. 앱 개발자들은 모바일 앱에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API는 모바일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돼 안드로이드와 iOS용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 개발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복정욱기자 jwpark@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